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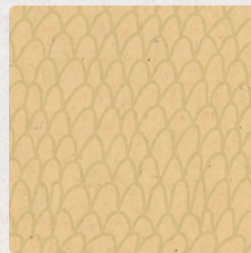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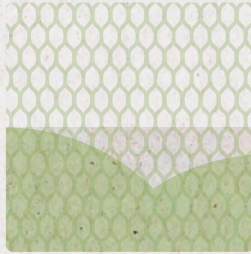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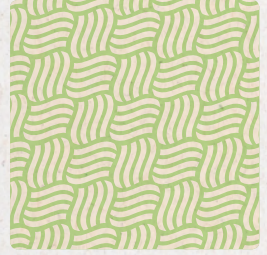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48-01

들녘에서 발견한 공동영농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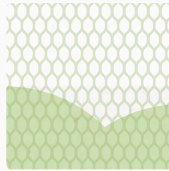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집

www.mafra.go.kr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집

들녘에서 발견한 공동영농 이야기



Contents



생산자 조직형

한그루영농조합법인	6
무형친환경영농조합법인	12
외내뜰영농조합법인	18

논 + 타작물 사업다각화형

둔포영농조합법인	26
공덕농업협동조합	32
큰사랑영농조합법인	38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
사업다각화형

영실영농조합법인	46
아자개영농조합법인	52
우리영농조합법인	58
봉황농업협동조합	64





한그루영농조합법인 ----- 6

무형친환경영농조합법인 ----- 12

외내뜰영농조합법인 ----- 18



생산자 조직형



한그루영농조합법인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은 30~40대의 젊은 농업인 7명이 모여 농업의 규모화 및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2008년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 이듬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의 20여 농가와 함께 320ha 면적을 공동경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26여 농가가 320ha에 달하는 면적을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수확 하여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현저히 달성하고 있다.

우리들녘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농업에 대한 꿈을 젊은 아들이 실현하기 위해 만든 영농조합법인. 아버지가 겪었던 고단한 농업 현실을 이제 아들이 희망찬 미래 농업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대표 박해원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320ha, 26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8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수확
- 쌀 · 맥류 이모작
- 전북 지역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 추진
- 쌀 생산 · 쌀가루 가공 · 판매 계열화 사업 추진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대규모 공동영농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비 절감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한그루법인은 7명의 젊은 기업승계 농업인이 '농가의 쌀 생산비 절감'이라는 목표로 설립하였다. 생산비를 절감 하기 위해 농지를 규모화·집단지화하고, 대단위의 영농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영농작업에 착수했다. 한그루법인은 대단위로 영농하기 위해 공동으로 육묘하고 방제 작업을 하여 쌀 생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종래에는 100ha 육묘에 2,500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2015년 공동육묘를 시작한 이후 45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로 방제 시간이 100ha 기준 1,2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그 결과 10a (약 300평) 당 62만원이던 평균 쌀 생산비가 2015년에는 48만원 선으로 감소되었다.

한그루법인은 공동육묘로 품종 및 재배 방법을 통일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해냈고, 한그루법인에 속한 농가들은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단가가 높은 고품질 쌀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늘었다. 한그루법인은 앞으로 2017년까지 공동경작 면적을 800ha까지 늘리고, 농가가 소유한 농기계 보유 대수를 통합 관리·이용하여 농기계 이용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질소비료 등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고품질뿐만 아니라 친환경까지 달성하고 기능성 쌀의 생산을 늘리는 등 쌀 품질의 다양화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과감한 과거 관행 농업의 청산으로 농업의 미래를 열다

90년대 후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이 지역 농업에 최대 위기가 닥쳐왔다. 농업인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농업이 고되고 힘든 분야로 인식되면서 농촌의 공동화가 일어났다. 익산의 젊은 농업인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함께 모여 과거의 소규모 영농 관행을 버리고, 규모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영농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할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농지를 규모화·집단화하고 농기계와 농자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패기만으로 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지역의 농업인 어른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농업을 단지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규모화·효율화 영농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협업체가 더 큰 소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한그루 법인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아, 농가 교육 및 컨설팅과 토론회 및 선진지 방문을 진행했고, 농업인들은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권역별 공동 작업이 통합되었고 기계 시설 투자비용이 절감되었다. 기존 경영체가 가지고 있던 농업 시설 및 설비를 회원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되기도 했다. 농기계와 농자재의 공동 이용을 통해 고령농 및 영세농의 농업 인력 수급이 용이해졌으며, 법인 관리 하의 공동 육묘로 품종(신동진) 및 재배 방법이 통일되었다. 이 모든 노력으로 마침내 고품질 쌀을 생산하게 되었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었다.

이모작과 사업다각화로 농가 소득증대

한그루법인은 한반도 서남부 평야지역의 전형인 논벼·맥류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2008년에는 밀과 보리를 전체 들녘의 20% 면적에 이모작으로 재배했다. 이모작 면적을 2013년 이후 약 50%까지 확대했고 여기에서 생산된 밀은 우리밀 운동본부에서 공동판매가 이루어져 농가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변 법인들과 맥류 협의회를 결성하고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시장의 교섭력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마철 물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논콩 재배의 안정화를 이루어 쌀 적정량 생산을 달성한 성과는 들녘경영체의 우수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2008년 설립 당시 생산비 절감에 맞추었던 한그루법인의 주요 사업이 이제는 가공 유통에 대한 비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그루법인은 기존 경영체와 영농조합법인의 한계를 넘어 협의회 및 연합 사업단 등을 구성하여 대규모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해야 했다.

적극적인 영농 활동으로 젊은 농업인들 동기 부여

한그루법인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육묘, 공동방제 등의 공동영농을 시작하면서 수동적으로 기업을 이어받아 농업을 시작한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에게도 도전 정신을 고취시켰다. 한그루법인의 성과에 자극을 받은 전북의 다른 젊은 농업인들이 2012년 패기와 열정으로 모여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한그루법인과 한마음법인은 연대하여 전북지역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들녘경영체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수익사업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

한그루법인은 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쌀 가공(프리믹스 냉동 쌀가루) 등 2차 생산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쌀 소비 확대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떡 프랜차이즈 사업체 '라이스 파이'와 연계한 한그루법인은 계약재배를 통해 쌀 생산부터 쌀가루 가공, 판매까지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이 계열화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약속하는 '가공용 쌀 안정생산 및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농·산·학·관 상생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법인은 2020년까지 1,600톤의 가공용 쌀을 기반으로 쌀가루 2,560톤을 판매해 약 76억원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개방화 시대
 농업인의 살길은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효율성
 높이는 것

공동체 결성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2003년부터 농업인을 아버지로 둔 아들들이 친목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젊은 친구들은 친목 모임을 갖기 위해 고향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자주 방문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들이 이어가는 힘겨운 농사일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힘드신 아버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리 고향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7명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 농작업을 하는 법인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8월 대기업 IT업계 팀장, 축구선수, 토목업 종사자 등의 다양한 직업과 개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한그루법인은 시설·장비의 공동이용과 공동 농작업으로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나가는 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지를 규모화·집단화했고, 대단위 영농을 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공동 농작업 즉,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원 대표



성공 노하우!



- 01/ 젊은 소수정예 구성원들이 주도한 **열정과 도전 정신**
- 02/ 이모작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및 주변 젊은 법인들과 **연대 강화**
- 03/ 가공쌀의 안정생산 및 신규 수요창출을 통해 **쌀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생산능가 소득증대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04/ 쌀가공, 논콩 등을 통한 **농업 다변화 포트폴리오 추진**



무형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의 81농가가 친환경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8년 설립했다. 201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영농으로 저비용, 친환경,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익산시 브랜드 '탐마루 쌀'을 통해 익산시 전체와 서울 은평구 지역의 학교 급식용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들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들녘경영체로서 입지를 확보한 영농조합법인. 체계적인 공동 농작업과 철저한 생산 관리로 저비용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고 있다.

대표 유창식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209ha, 81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8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수확
-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한 들녘경영체로서의 입지 확보

무형친환경법인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축산분뇨 등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환경을 유지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본 법인은 공동육묘,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수확 등의 공동 농작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무형친환경법인은 2011~2012년,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아 들녘경영체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지의 효율적인 공동 농작업을 발 빠르게 벤치마킹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무형친환경법인은 익산 친환경 협동조합에 속한 친환경 쌀 생산자 조직으로, 명천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국종합처리장)와 함께 100%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한 쌀을 익산시와 서울 은평구 지역의 학교로 공급한다. 무형친환경법인은 지속적으로 들녘경영체의 공동 농작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친환경 농업과 공동 농작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서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은 WTO 출범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쌀값이 폭락하고 소득이 급감하게 됐다. 망성면의 농업인들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관행 재배 쌀과 차별화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소득을 확보하고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무형친환경법인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생산자 단체의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생산비가 많이 들고 농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비효율적인 생산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생산자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법인이 감당하던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 법인은 우렁이 관리, 병충해 관리, 생육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여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벼짚 환원 친환경 토양 관리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역량이 커진 공동생산 조직의 노고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농작업을 활성화한 생산자 조직 체계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생산 비용 절감

무형친환경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 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지를 규모화·집단화하고 체계적인 공동 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형친환경법인은 육묘장 1동, 트랙터 20대, 이앙기 15대, 콤바인 12대, 건조기 5대로 공동 작업을 진행하여 한 판당 2,000원이던 육묘를 공동육묘를 통해 1,500원으로 절감했고, 1,200평당 22,000원이던 개별 방제 비용을 15,000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했다. 쌀 생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인은 또 공동육묘 생산 및 공동 농작업에 따르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육묘 2인, 광역방제 4인 3조 이외에도 기타 작업에 임금을 지불하는 외부 인력 및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노동력 수급에 힘쓰고 있다.





철저한 생산관리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무형친환경법인은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육묘 단계부터 수확 후 토양 관리까지 철저한 생산관리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질소비료는 7kg/10a 이내로, 단백질 함량은 6.2%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은 신동진 140ha, 신농흑찰 31ha, 동진찰벼 38ha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익산시 명천 RPC와 100% 계약재배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모든 과정은 익산시와 익산시 브랜드인 '탑마루 쌀' 아래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타작물 재배 확대와 GAP 인증 쌀 생산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법인의 성장 기대

무형친환경법인은 설립 당시 209ha이던 공동 농작업의 규모를 2015년에는 250ha, 2016년에는 300ha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동 농작업의 범위도 기존의 육묘·이앙·방제·수확에서 건조 같은 수확 후 보관·유통까지 확장하여 더 많은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한다. 또한 타작물을 재배 및 유통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되는 쌀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쌀의 적정 생산도 유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논콩 재배에는 실패했지만 그 대신 들깨, 참깨, 고구마, 인삼 등을 재배·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도 했다. 무형친환경법인은 이제 공동 농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철저한 쌀 재배 및 관리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인증 쌀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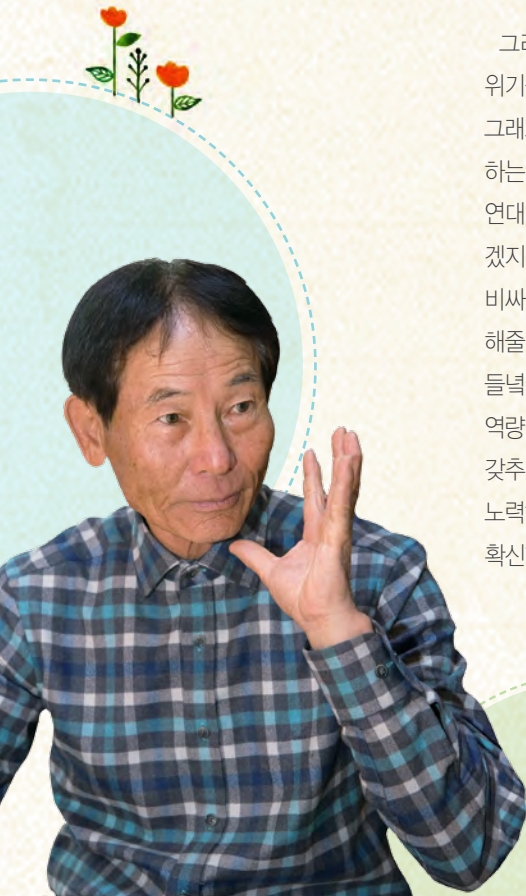
도시민도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동체 결성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농촌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움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3남 1녀 중 저를 제외한 형제자매가 모두 대학을 진학해 자신들의 길을 착실히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못한 제가 걱정스러우셨는지 고향에 돌아와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고향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농업인들도 WTO와 FTA가 몰고 온 이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농인 아버지를 둔 덕에 그래도 견딜만했습니다만, 친구의 아버지와 친구가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조금 비싸지만 안전하고 질 좋은 쌀을 공급하면 소비자들도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들녘경영체는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갖추면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농촌에서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창식 대표



성공 노하우!



01/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02/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지역 내 농·산·관의 협업체계 구축

03/ 저비용 인력 운용과 안정된 판로 확보 노력



외내뜰영농조합법인

외내뜰영농조합법인은 강원도 홍천군 내 10개 읍면에 소재하는 12개 생산자 단체가 모여 조직한 공동체이다. 외내뜰법인은 '생명의 먹거리 생산, 함께 사는 농촌'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면서, 청정한 홍천지역의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우렁이, 쌀겨농법 등의 친환경 유기농 쌀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우리들녘은!



농업인의 사명은 농지를 경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다.

외내뜰법인은 안전한 먹거리를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마음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삶을 실천하고자 한다.

대표 박병호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244ha, 144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6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 친환경 쌀, 친환경 채소 가공 유통
- 다양한 농촌체험 교육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유통 시스템 구축

홍천의 농업인들은 1990년대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와 WTO 체제 이후로 밀려들어오는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농업인들은 건강한 쌀을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기로 했고, 1993년 홍천군 명동리 마을에서 먼저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일반농법에서 벗어나 유기·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농업인이 살 길이라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홍천 지역의 농가들이 공동체를 결성하여 홍천 생산자 연합회 '한살림'을 출범시켰다. 연합회는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물류를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2006년 연익흥 회원을 대표로 선출하고 외내뜰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외내뜰법인은 개별농가의 생산을 계획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여 생산자연합회 농업인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썼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공동 수매·건조·도정·포장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또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으로부터 스타팜(Star Farm)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과의 교류 에도 힘쓰고 있다. 2013년에는 제33회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친환경 농업 부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친환경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로 정착 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위기를 기회로/병충해와 친환경에 유리한 포트 공동육묘로 위기 극복

외내뜰법인은 생산자들의 벼 전량을 계약 수매 후 도정하여 '한살림'이라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공급하고 있어, 생산자 스스로가 판로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농가에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자가 친환경 육묘였다. 육묘의 실패는 농가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급처와의 약속 위반으로 이어져 외내뜰법인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인은 못자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4년 농림 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을 받아 공동 육묘장을



건립했다.

공동육묘 유형은 물이 깊고 육묘가 길어 병충해에 이로운 포트 공동육묘를 선택했다. 벼를 25cm 이상 키워 활착이 빠르고 잡풀이 적게 나며 병충해를 줄여주는 포트 공동육묘는 성공적이었다. 2014년부터 법인은 공동육묘장에서 공동으로 육묘함으로써 공급처와의 약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주변의 소농과 고령 농가의 대리 육묘에서 공동이양까지 담당하며 충분한 육묘 생산·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외내뜰법인에서 흥천군 남면사무소를 찾아 남면지역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독거노인 등에 유기농 쌀(10kg) 50포대 (200만원 상당)를 기탁하여 지역민을 위로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안도감을 함께 나누었다.

굴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한 열정으로 상생의 길 열어

강원도의 힘을 자랑하며 청정지역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외내뜰법인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90% 이상이 한살림으로 공급되고 있다.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법인은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는 적정 가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다. 생산자는 100% 계약재배로 생산하고,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한 가격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가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수많은 벌레들이 기존의 농약에 내성이 생겨 퇴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인, 즉 법인의 강한 의지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우리 땅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먹거리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소비자의 사려가 결합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한편, 외내뜰법인은 흥천군 남면 명동리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한살림 등 유통조직과 연계하여 쌀, 잡곡, 채소 등의 농산물 1,600여 톤을 유통하고 있다.

삶의 현장이자 아이들의 교육의 장인 농촌 들녘



외내뜰법인은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땅을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담아, 매년 아이들을 위한 겨울 생명학교, 썰매타기, 연날리기, 여름 생명학교, 논생물 다양성 교육, 메뚜기 잡기, 버 베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흥천은 유기농산물 재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참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공간이다. 한옥으로 지어진 체험관, 통나무로 만든 숙박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어, 수도권 가족들의 체험장 또는 학교와 유치원 단위의 어린이들 교육의 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농번기 철인 봄에는 매년 농촌 일손돕기 체험과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꽃 심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공동 농기계 보유로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 기대

외내뜰법인은 흥천군 내 10개 읍면에 12개 생산자 농가 공동체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아직 농지가 집단화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외내뜰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농가 공동체별 공동작업을 하고는 있었으나 들녘이 분산되어 법인 차원의 체계적인 공동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을 받아 공동 육묘장을 설립하고 공동육묘에 성공하게 된 이후 좀 더 체계적인 공동체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법인은 콤바인과 같은 공동 농기계를 보유하여 흥천군 구석구석 분포된 생산자 공동체와 평생 농사를 업으로 알고 살아온 고령 농업인들, 그리고 이제 막 농촌에 정착해 아직 친환경 농사에 초보인 귀농인들에게로 공동영농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은 더 체계적으로 공동 농작업과 공동수확을 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대를 이어
이 땅의
농업인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겠습니다!

공동체 결성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저는 대를 물려받은 농업인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저 역시 농사가 제 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18살 때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대신해 논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주다가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농약을 쓰는 아버지의 논농사를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혼자서 20여 년간 버섯 재배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 중국산 버섯이 국내 시장에 밀려들어와 제 농산물에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버섯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사밖에 없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사는 할 수 없었던 제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삶의 터전인 농지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 하다 친환경 유기농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은 자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일입니다. 농약으로 망가진 땅을 친환경 농법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유기재배를 8년 정도 하면 땅이 살아나고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 농법으로 먹거리를 생산해 낸다면 치열해진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인은 앞으로도 땅을 살리는 유기농법으로 우리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박병호 대표

성공 노하우!



- 01/ 들녘경영체 운영으로 개별 생산자와 법인의 상호 협조 관계 구축
- 02/ 생산자 공동체와 소비자 공동체의 협력체계(가격조정위원회) 구축
- 03/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100% 계약재배





둔포영농조합법인 ----- 26

공덕농업협동조합 ----- 32

큰사랑영농조합법인 ----- 38



논 + 타작물

사업다각화형



둔포영농조합법인

둔포영농조합법인은 과거 관행 농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농법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유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201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꼬마감자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시설인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사업다각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들녘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평야에 소재한 170여 중·소 농가가 모여 2008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고품질 쌀 생산으로 시작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한 꼬마감자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사업까지 풍요로운 농촌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대표 한기홍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200ha, 170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8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건조
- 고품질 쌀, 쌀·밀 이모작
- 꼬마감자 생산·가공·유통으로 사업다각화 추진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들녘경영체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돈포법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평야에 소재한 170여 중·소 농가가 모여 2008년 설립한 법인이다. 과거 관행 농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농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했던 돈포법인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농가의 농지를 조직화·규모화하고, 수도작이 주작목인 이 지역에서 공동영농으로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들녘경영체의 벼·밀 이모작 공동 농작업을 통해 돈포법인은 200ha 농지에서 주변 지역보다 약 6% 높은 1.4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2008년 법인 설립 당시 100여 농가의 110ha 면적 규모가 현재 170여 농가 200ha 면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업 성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꼬마감자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꼬마감자 생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주)록야와 협업을 통해 기존 시설인 벼 육묘장에 꼬마감자(80g 이하)를 생산하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돈포법인은 감자 전문기업 (주)록야 및 아산시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농·산·관의 주체별 역할 전문화를 구현하고 추가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기를 기회로! 이모작으로 농가 소득증대

돈포법인은 새로운 방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논농사만 짓는 농촌을 계몽하려는 목표로 설립됐다. 돈포법인을 설립한 후, 지역의 농가들이 벼와 밀 이모작 단지를 만들고 이모작 재배를 확대하고자 유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벼 수확을 끝낸 논이 휴지로 있었지만, 기존의 관행 농업에 익숙한 농가들이 이모작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후 법인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게 되었다. 돈포법인은 선진지를 방문하고 성공 사례들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지를 집단화·규모화하고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등의 공동 농작업을 구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마침내 벼와 밀 이모작을 시작했지만, 물 관리의 실패로 다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평가에서 둔포법인의 '아산 맑은 쌀'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둔포법인은 다시 이모작에 대한 의지를 키워 2011~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들녘경경제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고 2014년부터 쌀·밀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게 됐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산·관 협력시스템 구축

둔포법인은 공동육묘로 품종을 통일하고 공동영농을 수행하고, 아산의 농업기술센터는 재배관리기술 교육, 쌀 성분·품위검사 실시 및 지도 등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둔포농협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는 생산된 쌀 전량 수매 후 건조·저장·포장·관리 후 고품질 브랜드로 유통까지 맡으면서, 농·산·관 협력 시스템이 '아산 맑은 쌀' 생산을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산 맑은 쌀'은 둔포농협 RPC와 계약재배로 생산되어 경인지역의 농협 하나로클럽 등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법인차원에서 생산한 쌀을 둔포농협 RPC가 전량 수매유통하도록 관리하면서 농가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육묘장을 활용한 꼬마감자 생산·가공·유통으로 사업다각화 추진

둔포법인과 ㈜록아는 기존 자산인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꼬마감자를 생산하는 계획을 현실화했다. 둔포법인의 벼 육묘장 3개 동(600평)에서 재배한





고마감자는 11월 중순 경에 수확할 예정이다. 둔포법인은 소득 다양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들녘경영체를 육성하는 계획으로 고마감자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벼 육묘장을 활용한 고마감자 생산 기반은 법인에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고마감자 재배는 원예용 포트에 바로 씨감자를 심고, 단단식 육묘 선반을 이용하여 재배한다. 포트와 모판흙, 트레이 등 초기 투자비가 요구되므로 노지 재배에 비해 초기 생산비는 다소 증가하지만 농산물의 생산량은 5배 정도 많다. 고마감자가 일반 감자에 비해 면적당 생산량이 적은 약점이 벼 육묘장을 활용한 생산을 통해 극복된 결과이다.

고마감자를 활용한 HMR 시장 선점 기대

둔포법인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의 일환으로 3년간 20억원을 지원받아 고마감자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한 작업창고,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6동을 확보할 예정이다. 고마감자 생산 사업은 미니채소,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시장의 수요 확대로 법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HMR 시장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1~2인 가구의 성장으로 HMR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재배 여건상의 한계로 고마감자의 공급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둔포법인은 시장의 이러한 상황을 읽고, 각종 레시피를 기재한 포장지에 고마감자를 담아 유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흙에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부농을 꿈꾸는
사람들

공동체 결성 배경과 목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흙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쌀값 하락과 고령화 등으로 침체되어가는 농촌 사회에서 농촌을 계몽함으로써 지역농가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농촌 계몽의 꿈을 안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중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아 농가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들녘경영체의 가장 큰 성과는 의식의 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긴 시간의 토론과 설득에도 변하지 않던 우리 경영체의 농가들이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경험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졌고 이 시도들이 실패하기도 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농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농사,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기흥 대표



성공 노하우!



01/ 둔포농협 RPC와 계약재배와 철저한 품질 관리

02/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지역 내 농·산·관의 협업 체계 구축

03/ 기존 시설을 활용도를 제고한 타작물 생산으로
추가 부가가치 창출



공덕농업협동조합

공덕농업협동조합은 고품질 쌀 ‘지평선 상상예찬’과, ‘상상예찬 골드’를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식탁에 올리고 있다. 2004년 12대 우수브랜드에 입상한 이후 총 5회 브랜드 쌀로 선정된 전북 쌀 대표 브랜드이다. 2016년에는 들녘 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논콩, 고구마, 감자 등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며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녘은!



농업과 기업의 연대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농업 협동조합. 2003년 신선설농탕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신뢰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쌀을 공급하며 농가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설렁탕을 먹는 식객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 문홍길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402ha, 180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8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방제
- 친환경 쌀, 고구마 생산 가공 유통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농업과 기업의 연대로 행복한 상생의 길 열어

전라북도 김제시에 소재한 공덕농협은 무농약 재배와 엄격한 미질 관리로 '상상예찬 유기농', '상상예찬 골드', '상상초월', '왕겨 숲 미' 등의 쌀을 생산하여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제 공덕농협의 브랜드 쌀은 고품질의 친환경 쌀이며, 이 중 '상상예찬 유기농'은 농약을 쓰지 않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며 왕겨 숲과 목초액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기능성 쌀이다.

2003년부터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해 생산한 쌀을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신선설농탕'에 공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한 지원책으로 신선설농탕과 공덕농협이 '우리 쌀값 지켜주기 협약'을 맺고 그 후 2년간 약 66억원 가량의 쌀을 구매하여 포대 당 2,000원을 적립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총 3억 3,000만원 규모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며 농가에 쌀값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공덕농협과 신선설농탕이 함께 이루어낸 성공은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 쌀 산업이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또한 공덕농협은 2009년부터 '특등 수매제'를 도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특별히 애쓰고 있다. 특등 수매제는 농가들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농협이 줄여주면서 고품질 쌀 생산 농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애물단지 왕겨로 고품질 쌀 생산

공덕농협은 일반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지평선 단지 농가와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들녘경영체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공덕농협은 친환경으로 어렵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쌀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공덕농협은 애물단지였던 쌀 부산물인 왕겨를 태워 나오는 숲과 액을 활용하여 벼를 재배하면 벼의 뿌리 활착력이 높아지고 산성화된 흙이 유기질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시험 재배와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이 새로운 농법은 또한 벼의 묘판에 상토와 왕겨숯을 절반가량



혼합하므로 묘판의 무게가 크게 줄어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노동력 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애물단지였던 왕겨가 친환경 농업 자재로 거듭나 흙의 유기질화, 미질 개선, 농자재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다방면에서 효과를 거두었다. 공덕농협은 자체 개발한 친환경 왕겨 농업 자재를 활용하고 201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으면서 친환경 고품질 쌀의 생산량 증대와 공덕면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의 일환인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공동경영에 대한 확실한 틀을 마련할 기회를 가졌다.

들녘경영체 운영으로 집단화 규모화된 친환경 농업 정착

공덕농협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으로 실시한 공동방제 사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공동 농작업을 구축하며 친환경 쌀 재배 시스템을 갖추었다. 2015년에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으로 공동육묘장을 건립하여 공동육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상예찬 유기농 쌀 생산단지를 친환경 유기농 농가들로 집단화한 들녘경영체 전체가 GAP 생산 단지 인증을 받았다.

또한 규모화·기계화와 친환경 농법이 결합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공덕농협의 쌀 경쟁력은 높아졌다. 공덕농협이 운영하는 들녘경영체는 '농가소득증대 및 함께 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왕겨 펠릿 생산으로 원예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

공덕농협은 또 RPC에서 발생하는 왕겨로 친환경 왕겨 펠릿을 만드는 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20kg들이 4만 포대를 제조하여 시설재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관내 시설 하우스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공덕농협 RPC는 시설 하우스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발생하는 2,000여 톤의 왕겨를 난방용 펠릿으로 가공하여 시설 하우스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재 펠릿으로 연료를 교체하고 있지만 구입가격이 만만치 않아 농가들의 영농비 부담이 큰데 따른 조치이다. 왕겨 펠릿은 목재 펠릿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좋다. 하우스용 목재 펠릿이나 난방기에 사용하는 펠릿의 가격은 1kg에 350원가량인데 이에 비해 왕겨 펠릿은 1kg에 200원 이하로 가격 면에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왕겨 펠릿은 하우스 난방용, 산업용 그리고 친환경 건축 자재로도 활용도가 높다. 공덕농협은 비영농철에도 펠릿 생산 시설을 24시간 가동하여 연간 20kg들이 4만 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다각화 추진

2015년 공덕농협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소재하는 다른 두 개의 농협과 함께 331ha(100만 평)에 무병고구마 단지를 조성했다. 무병묘 3만주에서 씨고구마 66톤을 수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여섯 농가에서 무병중순 396만주를 생산한 후 다시 29농가에 보급하고, 이들 농가에서 1,650톤의 무병고구마를 생산 해냈다. 이런 방식으로 무병중순 공급을 늘려 2018년에는 씨고구마 270톤으로 무병중순 1억 6,200만주를 120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무병고구마 6,750톤을 생산·판매하여, 120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덕농협은 세척장, 저장고, 가공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농가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군고구마 말랭이로 가공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해 400ha에 보리를 계약재배하고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수확 등 공동농작업을 구축하여 보리 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농업과 기업의
협력으로
행복 증진
상생 모드 구현

공덕농협 들녘경영체가 성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농업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사의 길을 꿈꾸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중등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꿈을 접고 정미소를 운영하면서부터 농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농업인으로 조합장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덕농협은 2003년 남아들던 쌀을 팔기 위해 경기도 부평에 직판장을 내고 공덕 친환경 쌀 판매에 나섰다가 신생 회사인 신선설농탕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 되지 않아 지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공덕농협과 농업인들은 회사를 믿고 쌀을 외상으로 제공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의 신뢰를 쌓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농업은 농업 자체만으로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데, 공덕농협은 신선설농탕과 각별한 인연과 신뢰를 맺음으로써 농업인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문홍길 대표



성공 노하우!



01/ 농업과 기업의 **협력으로 상생 모드 구현**

02/ 쌀 부산물인 왕겨의 **자원화 사업 성공**

03/ 들녘경영체의 **규모화·기계화와 경쟁력 가진
친환경 농법의 결합으로 생산 증대**



큰사랑영농조합법인

큰사랑영농조합법인은 7명의 이사진과 공동육묘장 2동(661㎡), 트랙터 3대, 이앙기 2대, 콤바인 2대, 건조기 6대, 광역방제기 1대를 가지고 공동육묘,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수확, 공동건조 등의 공동 농작업을 진행하여 생산비와 시간을 절감하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있다.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타작물 재배와 밀 이모작을 통해 소득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농업인들에게 여가를 제공하여 평생 농사만 짓던 이들의 삶에 여유를 찾아주고 있다. 201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경제육성사업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밀 가공·유통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녘은!

2010년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에 소재하는 10명의 조합원과 176ha 농지에서 시작하여 조합원 180명에 농지 499ha 규모로 성장한 영농조합법인. 김인현 농업인이 쌀값 하락과 고령화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설립하고, 현재는 아들인 김영륜이 그 뒤를 이어 고령 농가에 여가를 마련해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더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 김영륜

공동경작지, 참여조합원

499ha, 280명(준조합원 포함)

법인조직화 연도 2010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파종,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건조,
- 쌀, 밀, 조사료 생산·가공·유통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타작물 재배로 소득증대와 여가 확보까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에 위치한 큰사랑법인은 7명의 이사진과 5개로 나누어진 팀에서 280농가의 499ha 농지를 공동으로 농작업하여 체계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에 큰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WTO 출범과 FTA 체결로 농촌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목표로 2007년 김인현 농업인이 설립한 본 법인은 현재 아들인 김영륜이 대표직을 이어받아 '고령 농가에 여가를 마련해 주자'는 새로운 목표를 더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큰사랑법인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농림축산식품부 들녘 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충남 지역의 우수 들녘경영체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쌀 적정생산의 일환으로 타작물인 밀, 옥수수, 조사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큰사랑법인은 국산 밀 생산단지를 200ha에 걸쳐 조성하였고, 현재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위기를 기회로! 공동 농작업으로 소득도 올리고 여가도 찾은 농업인들

WTO 출범 이후 FTA 체결이 더해지면서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부여 지역의 농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산물값이 폭락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농업 현실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한 농업인들은 유희지를 활용한 조사료의 재배라는 대안으로 모여 2010년 큰사랑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쌀값은 폭락했지만 그동안 논농사만 짓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니, 적은 수익으로 한 해를 살아야 하고, 그렇기에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에게 여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큰사랑법인은 겨울철에 황량하게 버려지는 농지를 이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하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소득이 오르면 여가도 가질 수 있다고 농업인들을 설득했다.

이후 겨울철 조사료 재배로 농가의 소득은 증대되었지만 여가를 즐기는 것은 여전히 힘겨웠다. 이에 법인은 농작업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작업해야 하는 고령 농가를 위해 농작업을 대행하여 고령농의 농작업 인력 수급 문제와 농기계 대행에 드는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농지를 체계적으로 단지화해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조직화·규모화된 영농으로 농가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고 여가 시간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벼 직파재배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하고 쌀 생산비 절감 가능성 열어

큰사랑법인은 2016년 9월에 법인의 논에서 한국직파농업협회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벼 직파재배 발전 평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농촌 진흥청 사업으로 벼 직파재배의 최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는데 이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여가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다.

벼 직파재배는 못자리와 모내기를 하지 않고 직접 범씨를 뿌려 벼농사를 짓는 기술로, 기존 벼 농사기술에 비해 노동력은 19%, 생산비는 6%를 절감할 수 있어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잡초 방제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고령화된 농촌 인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고 생산비를 절감해 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크다고 법인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직파재배 모델 개발 실증시험단지를 직접 추진한 큰사랑법인의 전 대표 김인현 농업인은 직파재배로 일손을 덜어 한우 250여 마리를 사육하는 복합영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들녘경영체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로 부가가치 창출

큰사랑법인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국산 밀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큰사랑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받아 국산 밀 생산 및 가공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6년 현재 40ha인 밀 재배면적을 2018년 200ha까지 점차 확대하여 우리밀 생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큰사랑법인은 또 농지의 20% 이상 면적에 조사료, 옥수수, 총채버를 재배하여 부여군 축산업협동조합과 협약으로 로컬 피드(Local Feed) 활성화하는 순환 농업인 경축순환농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들녘경영체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한 공동생산 기반인 공동육묘, 공동방제, 친환경, 조사료, 이모작 등 5개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만족을 농가에는 소득을 가져다 준 우리밀

큰사랑법인은 2015년 밀 원곡만으로 매출 2억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까지 밀 원곡 10억원 매출뿐 아니라 가공·유통으로 약 1억 6천만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여 총 11억 6천만원 매출로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모작으로 생산된 6,000톤의 밀은 '주식회사 우리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전량 납품되고 있다. 법인은 생산된 밀의 소비자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와 꾸준히 교류하며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친환경 밀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만족을,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여가를 즐기는
농촌을 꿈꿉니다

공동체 결성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받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이 농사에 뜻이 없어 제가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받아 짓게 됐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며 방학 때마다 고향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것이 농사일을 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농사일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WTO 출범이나 FTA 체결로 농촌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시겠다는 생각으로 2007년 큰사랑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법인의 감사로 계시고, 실질적인 법인 운영과 실무는 제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큰사랑법인의 설립 목적은 부여 지역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워진 농가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농작업을 하면서 생산비를 줄여가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영농작업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벼·밀 이모작과 조사료·옥수수 같은 타작물 재배로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커지고 지금껏 일반 하셨던 농촌의 아버지들에게 여가시간을 마련해 드리자는 목표도 더하여 그 목표 실현을 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사업들로 바쁘게 일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륜 대표



성공 노하우!



01/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신사업 개발**

02/ 공동영농을 통한 여가시간 활용 등 **고령농의 복지 향상**

03/ 규모화 효율화된 **공동영농 조직 운영**





영실영농조합법인 ----- 46

아자개영농조합법인 ----- 52

우리영농조합법인 ----- 58

봉황농업협동조합 ----- 64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

사업다각화형



영실영농조합법인

영실영농조합법인은 쌀, 보리와 한우를 결합한 복합 영농경영체로서 2006년 경상남도 산청군에 소재하는 농업인 5명이 모여 설립했으며 현재는 131개의 쌀 농가 및 축산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가 생산한 고품질 한우는 영실법인이 운영하는 한우식당을 겸한 판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고 있으며, 연간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 들녘경영체 농가에서 생산한 맥주 보리를 원료로 맥주를 개발하여 수제맥주전문점(MACOTHER)을 런칭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들녘은!

산청에서 2006년 다섯 명의 젊은이가 5천만원의 자본을 마련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산청 지역의 쌀 농가와 축산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고품질의 한우를 직거래로 판매하고, 맥주보리를 재배하여 우리 보리 수제맥주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대표 안두현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180ha, 131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6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파종, 공동이앙, 공동방제
- 쌀, 조식료, 축산, 한우직판장 운영
- 수제맥주판매점 MACOTHER 운영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통합 운영으로 농가 수익 증대

영실법인은 쌀 농가와 축산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산청의 쌀 및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경영체이다. 영실법인은 2009년 벼 공동 육묘장을 건립하고 공동 시비관리를 하면서 들녘경영체의 모습을 갖추었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아 조사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 기반을 확장하면서 들녘경영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2011년부터는 한우 농가들이 직거래를 달성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고품질의 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영실한우프라자를 운영하며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에 비해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맥주보리 농사를 시작하여 생산된 맥주보리로 수제맥주 생산까지 성공하였고 경남 진주시에 수제맥주전문점(MACOTHER 1호점)을 오픈했다. 2016년 영실법인은 우리 맥주보리를 사용한 수제 맥주의 생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됐다. 영실법인은 2016부터 3년 동안 지원금 20억원을 바탕으로 수제맥주 가공 설비, 교육 홍보관, 맥주 보리 파종 및 수확 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실법인은 농가가 생산한 맥주보리로 만든 수제맥주가 판매되면 농가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국내산 맥주보리 자급률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청보리 생산과 한우 사육을 연계한 경축순환농업 시작

WTO 출범이나 FTA 체결 이후 쌀값과 소값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산청에서 다섯 명의 젊은이가 2006년 영실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의 설립은 산청 지역에 소재하는 쌀 농가와 축산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공동영농작업으로 농가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영실법인은 공동영농으로 생겨난 노동력의 여유를 쌀과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데 활용했다.



영실법인은 겨울철 유희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청보리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소의 축분을 다시 거름으로 사용하여 보리 및 벼 생산을 위해 퇴비로 활용하는 순환농업인 경축순환농업을 시작했다. 영실법인의 축산 농가는 청보리 조사료를 먹어 원가를 절감하며 한우를 키웠고 법인은 소 출하시 1등급 소는 마리당 10만원, 1*는 20만원, 1**은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수익을 돌려주고 경쟁력도 키웠다. 또한 2011년 영실법인은 '영실한우프라자'를 건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가에는 소득을 증대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공동영농으로 절감된 노동력은 또 다른 부가가치 창출

영실법인의 들녘경영체 농가는 182ha를 공동육묘로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확보한 추가 인력이 시설딸기 재배와 맥주보리를 생산하게 됐다. 200평의 쌀농사가 40만원의 소득을 주는 반면 같은 면적의 시설딸기 재배는 1천만원의 소득을 가져다주었다. 들녘경영체의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수확 등의 공동영농을 통해 노동력이 감축되었고, 다른 사업을 진행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시설딸기를 재배하고 맥주보리를 생산하여 2차 생산품인 수제맥주를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실법인은 들녘경영체의 농가들을 더욱 조직화·규모화하여 공동영농을 구현하며, 비용은 줄이고 부가가치는 높이는 법인으로 성장하여 2025년까지 법인 연매출은 100억원, 개별 농가 소득을 7,700만원까지 증대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수제맥주 생산 판매로 선도적인 사업다각화 추진

영실법인은 스스로 자립해 농업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수제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전문점을 오픈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실법인은 직접 생산한 맥주보리를 주원료로 수제맥주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수입 맥주보리를 사용한 수제 맥주가 아니라 우리 맥주보리로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수제맥주를 지역의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원료로 만든 수제맥주를 지역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맥주보리로 생산한 맥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영실법인은 경상대학교의 관련 학과 교수들과 함께 국내산 맥주보리를 사용하여 우리 맥주보리 맛을 살릴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마운틴블루(라거), 한맥(에엘), 다크엔젤(흑맥주) 등 3종류의 수제 맥주를 개발·생산하게 됐다. 지역 특산물인 딸기를 첨가한 딸기맥주와 저알콜 맥주도 개발하여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제맥주 시음 및 체험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영실법인은 3년 내 영실한우프라자과 수제맥주를 함께 묶어 한방축제와 연계하여 산청에서 10월에 지리산 단풍보다 화려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영실법인은 지역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산청지역을 찾아오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사업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

들녘경영체의 역할과 대안은 무엇인지?

영실영농조합법인의 들녘경영체는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해 쌀과 한우 사육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그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정서에 기대는 농업으로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국내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해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우월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 소비 증대를 위해 축산 농가 스스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있어야 더욱 탄탄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실법인의 경영방침입니다. 우리 법인은 타 조합법인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한우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들녘경영체의 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와 청보리를 축산 농가에서는 사료로 쓰고 축산 농가에서 나온 거름을 벼 생산을 위한 퇴비로 활용하는 경축순환형농업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비용과 가격만 탓할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농업 과정을 조직화하고 타 품목과 연계하는 등 소득 향상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안두현 대표



성공 노하우!



01/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비용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02/ 공동육묘, 공동방제로 **절감된 노동력 등으로**
또 다른 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

03/ 지역특성 고려한 맥주보리 재배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은 공동영농을 기반으로 철저한 쌀 재배 및 가공 관리를 통해 GAP인증 쌀, 친환경 인증 쌀 등을 직접 가공·판매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고 있다. 고품질 쌀을 연간 약 6,500톤 생산하여 무려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들녘은!



2002년 친환경 쌀 작목반에서 시작하여 2005년 10명이 각각 1천만원씩 출자하여 자본 1억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에서 생산하는 '아자개 쌀', 이 품질 높은 쌀의 명성 뒤에는 묵묵히 일하는 178농가가 있다.

대표 안성환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503ha, 178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2년

들녘 경영 활동

- 공동육묘, 공동파종,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건조
- 쌀 생산·가공·유통
- 친환경 쌀, 쌀 수출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고품질 아자개 쌀로 국내외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다

아자개법인은 2005년 쌀농사를 짓는 마을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들녘경영체이다. 법인은 공동영농을 위해 품종 및 재배 방법을 통일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종자, 비료 등 농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동방제 팀을 구성·운영하여 생산비도 절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아자개법인은 쌀 생산량의 25%를 떡 프랜차이즈 기업인 '떡보의 하루'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가공용 쌀 18억여 원에 해당되는 800톤을 납품하고 있다. 또한 택배를 이용한 개인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연간 5천여 가구에 고품질의 아자개 쌀을 공급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2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아 들녘경영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의 고품질 쌀 생산 평가에서 2004년, 2009년 두 차례 대통령상을 받고 2012년에는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한 고품질 아자개 쌀은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을 시작하였다. 수출 지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현지 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속적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다른 수출 시장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2016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막걸리 등 쌀 가공품을 유통하는 새로운 6차 산업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대형마트 유통에서 벗어나 아자개의 힘을 키우다

기존 판매처인 RPC의 계약 파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아자개법인은 스스로 가공·유통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쌀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전국의 대형마트 21개 지점에 직접 납품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농가들은 맘 흘려 생산한 쌀을 안정적 유통망인 대형마트에 입점하게 됐다고 기뻐했지만 거래는 예상과 달리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대형마트는 조합에 잦은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판매 후 정산을 하면 법인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품질 경쟁이 필요한데 대형마트를 통한 판로는



품질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인은 대형마트 납품을 모두 포기하는 과감한 모험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아자개 쌀을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아자개 쌀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개인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5천여 직거래 소비자를 보유하게 됐다. 결국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법인의 의지와 소비자들이 쌓은 신뢰는 현재 법인의 성공을 가져다줬다.

생산자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소비자에게 최고의 쌀로

아자개법인은 오로지 1등급 쌀만을 생산하기 위해 수매 철 1등급 쌀이 아니면 수매를 하지 않는다. 서리가 내리면 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100% 하고 있으며 수확한 쌀은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13℃의 저온 저장고에서 보관한다. 아자개법인은 최고의 밥맛을 내는 쌀 생산을 위해 질소 비료는 7kg/10a 미만을, 수분은 16~16.5%로 일정하게, 단백질 함량은 6.5% 미만을 유지하는 쌀만을 생산한다. 이와 같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도정·포장·출하되는 쌀은 가공 과정에서 깨지거나 병들어 색이 좋지 않은 쌀을 완전히 제거한 완전미(Head Rice)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의 아자개 쌀은 일반 쌀보다 20~30% 정도 비싸지만 아자개 쌀의 품질을 알고 있는 5,000여 가구 소비자는 마케팅도 없고 대형마트에 유통되지도 않는 아자개 쌀을 택배로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 이는 출자한 법인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된 성과이다.





밥맛 좋은 쌀이 떡 맛도 좋다

아자개법인은 국내 최대 떡케이크 전문점인 '떡보의 하루'와 가공용 쌀 납품 계약으로 800톤의 가공용 쌀·찹쌀을 공급하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환원하고 업체에는 고품질 가공용 쌀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윈윈(Win-Win) 전략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아자개 쌀만 사용하는 '떡보의 하루' 떡을 먹어보면, 밥맛이 좋은 쌀이 떡 맛도 좋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6년에는 미국에 96톤, 캐나다 12톤으로 쌀 108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전체 쌀 수출량이 2,238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약 5%의 쌀을 아자개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아자개법인은 고품질의 아자개 쌀로 2014년에 90억 매출액을 기록하고 2015년에는 100억 매출액을 달성했다.

사업다각화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열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아자개법인에 3년간 20억원이 지원된다. 법인은 쌀 가공식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쌀을 이용한 한과, 막걸리, 엿 등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고품질 쌀로만 부가가치를 올리던 아자개법인에 기존의 주 농산물인 쌀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작 중심으로 활용했던 논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농한기 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재배된 타작물의 가공·유통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관된 영농계획으로 최근 지속되는 쌀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쌀의 적정 생산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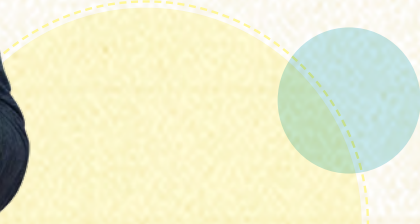
늘 우직하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공동체 결성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저는 농업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하던 사업을 접고 아버지의 일을 물려 받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고 사법면의 경영인 회장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2년 쌀 작목반을 만들었던 것이 법인설립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주위의 우려로 법인까지는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계약재배 물량 판매처인 RPC에서 계약파기를 요구 하면서 자구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후 가공시설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은 늘 지은 대로 거둔다는 우직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산한 친환경 명품 쌀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들녘의 농가들이 생산한 최고의 쌀을 조합원들과의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 아자개법인의 목표입니다.

안성환 대표



성공 노하우!



01/ 공동영농을 통한 고품질 명품 쌀
생산 기반 구축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

02/ 직거래 가공용 쌀 수출 등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개척

03/ 출자를 통한 구성원간 이익환원으로
주인의식을 기반에 둔 생산 관리



우리영농조합법인

우리영농조합법인은 2003년 1월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업인 주유소에서 출발하여 2007년 친환경 쌀 생산 농업인 96명과 친환경 유기채소 작목 농업인 47명의 생산자 조직이 법인을 설립했다. 2009년 군산시 관내 1개교 친환경 쌀 공급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23개교 341톤의 쌀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2015년에는 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우리들녘은!

지역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직접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아우르는 영농조합법인. 지역 아이들의 급식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 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깊은 신뢰까지 쌓아가고 있다.

대표 장재순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쌀 100ha, 농산물 23ha, 잡곡 5ha, 144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02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파종,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건조
- 친환경 쌀, 친환경 채소 가공 유통
- 농촌체험 및 추수체험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로 아이들에게 생명의 밥상을

우리법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농업인을 중심으로 2002년 12월에 처음 구성된 것이 그 출발이다. 2003년 농업인 주유소를 개업하고 2008년 11월 전북 군산 지역 친환경 농업을 기조에 두고 활동하던 농가들과 함께 '생명의 밥상을 만드는 농부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목표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자연을 살리는 동시에 이웃들의 밥상에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쉽게 올리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이다. 더 나아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식단을 지역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다.

2009년부터 1개 학교 급식 공급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군산시로부터 학교급식 공급 센터로 지정받아 많은 RPC들을 제치고 우리법인의 친환경 쌀 생산 농가가 생산하는 '자연과 생명을 품은 쌀', '새들군산 쌀, 품우리 쌀' 등의 친환경 쌀을 지역학교 급식에 43% 정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친환경 채소 농가는 학교 급식의 채소·야채 부문 100% 공급을 도맡고 있다. 2014년부터는 군산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 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 시행사업도 진행 중이다.

위기를 기회로! 유통에 뛰어든 농업인들

우리법인은 친환경농산물을 지역민에게 안정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생산과 유통에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평생 농사만 지던 농업인들에게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농사에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 외 분야는 초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2011년 말에는 자본 부족으로 농산물값을 농가에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최대 위기를 맞아야 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는 법이다.

2011년 군산 생활협동조합과 합병이 이루어지고 생협을 이끌었던 문정숙 이사가 우리법인의 상임이사로 취임한 후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함께 생산 농가의 수매 금액의 일정액을 출자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적립된



출자금으로 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이 결합한 생활협동조합과 합병을 하면서 유통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을 통해 법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하고 더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작업으로 생산 비용은 절감하고 유통은 투명하게

우리법인은 70여 곳의 친환경 쌀 생산 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건강하게 길러온 땅에서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지역민이 먹을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에 선정되어 공동육묘, 공동파종,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건조 등 쌀 생산에 대한 생산비 절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작업은 누구보다도 초보 영농인과 고령 영농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비용을 절감해주었다. 유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동도정, 공동수매, 공동정산을 거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농업인의 피와 땀으로 거둬들인 쌀을 생산자인 농업인 스스로가 지역사회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체험의 장 열어

우리법인이 이끄는 들녘경영체는 단순히 농가들의 모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교 급식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챙기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먹는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식탁에 오르게 되는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 같은 활동은 농촌 들녘이 어른과 아이가 함께 삶을 배우는 체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업인들은 아이들에게 “너를 위해 이렇게 농사를 짓는단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지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체험학습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렁이농장 체험 및 추수 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들은 들녘경영의 조직화·규모화로 발생한 유호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간 1,5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생산자는 풍요롭게, 소비자는 건강하게

우리법인은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와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급식 원료로 제공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201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인증을 받았고, 잔류농약분석지원, 업체 종사자 식재료 품질관리와 원산지 표시, 인증품 관리 및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연 2회 이상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최상의 식재료를 공급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올러 농산물의 전처리 시설, 농촌체험 및 요리체험장들을 신축해 나가며 더욱 체계화된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와의 직거래 장터를 열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길을 앞장서 만들 예정이다.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 법인이 가진 경쟁력이자, 앞으로 더욱 전진해야 할 목표이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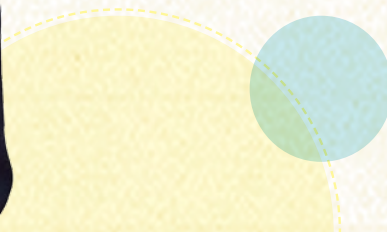
생각하는
농업인이 **농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공동체 결성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2002년 작은 사무실에 13명의 소작(小作)농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들의 피해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시점이었죠. 당시 모인 농업인들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누구나 하는 쉽게 짓는 농사,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 왔던 농사를 버리고 ‘생각하는 농업인의 농사’를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농사야말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농업인의 가치 있는 농사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40년간 농업인의 길만 걸어온 저와 군산시 농민회를 중심으로 조직한 ‘우리영농조합법인’은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며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먼 타지까지 유통되려면 시들지 않게 약도 쳐야 되고 운임비도 많이 듭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마땅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해로운 약을 덜 먹어 좀 흡이 있고 못생겼지만 건강만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장재순 대표



성공 노하우!



- 01/ 환경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착하고 성실한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법
- 02/ 다양한 생활협동조합과의 협력
- 03/ 학교 급식 공급센터를 통한 학교 급식에 식자재 공급
- 04/ 생산자 중심 가격 결정
- 05/ 농촌체험 활동이라는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봉황농업협동조합

2011년 조직화된 봉황농업협동조합은 내부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조합원과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시작하며 최고의 맞춤형 농협으로 거듭났다. 지역 특성상 고령의 조합원이 많은 봉황농협은 고령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도 힘쓰고 2016년에는 1억여 원에 이르는 농협자체 순수익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들녘은!

고령 농가의 눈을 위탁받아 경운,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판매까지 전반적인 고된 농작업을 같이 처리해 주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농업협동조합. 봉황농협은 농작업 대행을 통해 고된 농작업을 같이함으로써 고령 농업인들의 소득도 올려주고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박창기

공동경작지, 참여농가

313ha, 314농가

법인조직화 연도 2011년

들녘 경영 활동 등

- 공동육묘, 공동파종,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건조
- 농작업 대행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실천합니다!

농작업 대행으로 고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앞장선 봉황농협

조합원 수가 1,800명인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농협은 고령 농가의 105ha 논을 위탁받아 경운,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판매까지 전반적인 농작업을 맡아 하고 있다. 봉황농협이 전담 인력을 운영해서 농가의 어렵고 힘든 농작업을 대신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영농애로를 해소해주고 소득도 높여 주는 것이 목표이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심각해지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봉황농협은 2011년부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2대, 농업용 무인헬기 2대를 마련했고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6만 상자의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1,980㎡ 규모의 공동육묘장까지 갖추게 되었다. 농작업 대행사업이 참여농가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사업범위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농가 소득 증가에도 기여했으며, 봉황농협의 경영손익도 흑자로 돌아섰다.

봉황농협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농업인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다. 농협은 공적 기능, 생산자 공동체 기능, 경제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경영체인데 봉황농협은 이러한 기능을 모두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봉황농협의 이러한 농작업 대행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농협에서 일하던 농업인들이 농림축산 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경영혁신으로 다시 찾은 신뢰

1993년부터 나주배를 가공해 만든 술로 나주를 알려왔던 봉황농협은 2008년 배술 가공 공장의 경영악화로 재정 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배술 가공사업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사업비는 물론 지역의 가공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봉황농협은 제2의 창립을 각오로 '새 농촌 새 농협'을 선포하고 '경영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조직을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 나섰다.

봉황농협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할 농작업 대행이라는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사업과 농가의 실익 증진에 힘쓰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농작업 대행사업은 봉향농협이 조합원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아 봉향농협의 혁신을 완성할 수 있었고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공동육묘장을 건립하여 600여 평의 벼 공동육묘를 할 수 있게 되어 농작업 대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농협은 들녘경영체 운영을 통해 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신소득원 발굴 및 잉여 노동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남지역 365일 연중 농작업 대행 시범사업 발대식 가져

2011년부터 시작한 봉향농협의 농작업 대행사업은 2016년 5월 전남농협 지역본부와 봉향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365 농작업 대행 시범사업단 발대식'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지금까지 벼농사만 대행해주던 사업에서 2모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365일 연중 내내 농작업의 대행으로 사업이 확장된 것이다. 시범으로 34농가 31ha에서 2017년 7월까지 벼·귀리를 2모작으로 대행할 계획이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봉향농협이 책임지는 일괄 대행으로 진행할 것이다. 고령화와 부녀화로 영농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일손을 농협이 대신하여 작업하고 농번기 영농지원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작업 대행이 가져다준 고령농의 복지

봉향농협의 조합장과 직원들은 직접 트랙터를 몰고 아침 6시에 농업인들의





논으로 출근하여 8시까지 농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채워진다. 대행 농작업은 600여 평의 벼 육묘장에 볍씨를 뿌리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무인 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봉황농협이 필요할 때마다 농약을 살포하고 추수 때는 수확에 이어 건조·판매·정산까지의 작업을 대행하여 고령 농가들의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논 갈기, 씨레질, 로터리에 이어 모심기가 끝나면 논 주인들은 물 관리와 논두렁 풀 베기만 하면 된다. 농작업 대행으로 얻은 소득은 봉황농협에서 원로 조합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15% 범위 내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원로 조합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 효친을 실행하여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의 조치이다.

가공·유통 등 사업다각화 진출의 기회 마련

2009년부터 봉황농협의 들녘경영체는 논 농업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생산비와 시간을 절약하며 고품질 쌀을 공동생산하고 있다. 201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어, 생산을 비롯한 가공·유통 등 타산업 부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사업다각화 지원은 봉황농협의 사업을 생산을 비롯하여 가공·유통에 이르는 다른 산업 부문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총 2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특수미·찰벼 재배를 통한 논농업의 다양화 및 이모작 재배를 위해 51농가에 31.5ha를 확정하고, 농작업 대행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2년 차에는 공동 포장재를 개발하여 생산물을 소포장 상품화하고, 쌀로 만든 떡, 콩으로 만든 두부, 된장 등을 제품화한 뒤, 3년 차부터는 가공 시설 설립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INTERVIEW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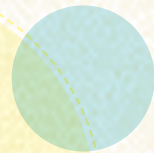
농업인과 함께
일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의 시행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봉황농업협동조합은 1993년부터 나주배를 가공하여 만든 술로 나주를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배슬 가공 공장의 경영악화로 재정의 압박을 받아 배슬 가공 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다 농작업 대행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나고 자라 농협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을 많이 보아온 저로서는 고령으로 농작업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농가를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고령농의 소득증대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복지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창기 대표



성공 노하우!



01/ 현실을 반영하고 눈앞에
실적에 얽매이지 않는 사업 추진

02/ 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력의 연계

03/ 시스템화 되고 조직화된 업무처리체계 구축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집

들녘에서 발견한 공동영농 이야기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편집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기 획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디자인 (주)메이커뮤니케이션 02.761.8340

www.mafra.go.kr

